

이 아버지, 기대한 일자리를 얻었을까요



광주지방노동청이 지난 7일 개최한 실버 취업박람회에 들렀다가 구석에서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60세가 훨씬 넘어보이는 할아버지가 침착한 눈으로 정성들여 이력서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더군요. 혹시 틀린 곳 없는지, 잘못 쓴 글자는 없는지 한번 더 꼼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나이보다 능력이 우선입니다”라고 내걸린 현수막을 가리키며 웃더군요.

이날 일자리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는 노인들, 정말 많았습니다. “할 일 없이 시간만 죽여서야 되겠냐”며 아침 일찍 시내버스 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 때문에 이력서도 못 냈다고 합니다. ‘실버’라고 갖다 붙인 뒤 상당수 업체에서 60세 미만인 사람들만 뽑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재취업을 하려고 간절히 애쓰는 노인들의 심정, 취업하려는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버’라는 말만 갖다 붙인 ‘전시상’ 행사에 쫓아다니지 않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큰 희망 사항인가요.

/나영기자 mjna@kwangju.co.kr

뉴스퀴즈 87·88회 박용숙씨 1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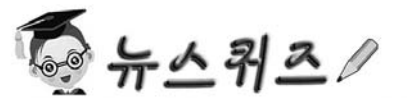


광주일보가 실시한 87·88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박용숙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박씨는 12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87·88회 뉴스 퀴즈에는 영업서와 편지로 332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박용숙·광주시 북구 용봉동
2등 ▲장병규·광주시 동구 산수동



89. 서남권 경제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될 국제공항의 역사적인 개항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공항 개항은 지난 1999년 12월 착공식을 가진 지 8년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무안국제공항 ② 김해국제공항
③ 청주국제공항 ④ 대구국제공항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이규연 <금호고 교사>

“호석아, 어디냐?”
“선생님, 저 지금 논산 가고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순간, 아차 싶었다. 10여일 전에 입대할 때 꼭 한 번 더 보자는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 ‘내가 먼저 확인했어야 했는데...’ 때늦은 아쉬움이 밀려온다. 호석이와의 통화는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놓았다.

호석이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사는 제자이자 후배 녀석이다. 호석이와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학식 때 처음 만난 호석

이와 호석이의 어머니는 참으로 선하고 착한 모습이었다. 개인 신상을 확인하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관심은 더 깊어졌다. 제주도 수학여행 때 반 아이들과 함께 한 말뚝박기에서 호석이는 안경이 깨지고 얼굴이 아팠었다. 숙박지 근처에 병원이 없어 비자람 수련원에서 제주시까지 가슴 조이는 동행을 해야만 했다. 몇 바늘을 꿰매고, 안경을 맞추고 난 뒤 우리는 호석이가 어머니가 잘해준다는 낙지볶음으로 뒤통은 식사를 하였다.

호석이와 어머니와의 인연이 가슴 아픈 기억으로 바뀐 것은 호석이 아버지의 급작스런 사망이었다. 며칠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뇌었던 호석이 아버지의 급작스런 사망 소식을 내에게도 충격이었다. 부음 소식을 듣고 달려간 장례식장에 호석이는 중학생 동생과 함께 상주복을 입고 힘없이 앉아 있었다. 조문을 마치고 난 뒤 내 손을 잡고 “우리 호석이 이제 어떡해요, 선생님!”하며 통곡

하시던 어머니께 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로 힘들어하는 호석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 2학년으로, 또 3학년으로 올라갔다. 3학년 초 바쁜 등굣길을 재촉하는 호석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대신한 등교를 시도하였다. 아침마다 옆자리에 태워 부족한 잠을 청하는 녀석의 안쓰러운 표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1학년 때 의대를 꿈꾸던 녀석은 어렵게도 다른 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생이 된 호석이는 여자 친구도 생기고 얼굴에서 미소도 되찾아져서 큰 격정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에서 외롭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녀석을 발견했다. 아는 체를 하려 다가 먼 발치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자신의 집을 올려다보며 긴 담배연기를 내뿜고는 한참 후에 아 떨고 일어나는 녀석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대학생 호석이는 종종 만나 대화했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곤 했는데, 보름 전에 군입대

사실을 알려주었다. 입대 전에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다. 호석이 입대한 밤, 녀석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은 녀석의 아파트를 퇴근하면서 본 뒤 어쭙잡은 위로의 말이지만 호석이의 편지가 집을 채워드리고 싶었다. 이제 녀석의 첫 편지가 집으로 왔을 법한 시기가 되었다. 어머니 주소를 물어 녀석의 빈자리를 채워 줄 긴 편지를 써 봐야할 형勢이다.

교직에 몸담은 지 11년째 접어들면서 가슴 속 깊이 남아 있는 제자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밝은 아이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채워줘야 할 것 같은 제자들인 이유는 뭘까? 교직은 얻는 자리가 아니라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지닌 가슴은 비록 작지만 이 좁은 가슴으로도 안아줘야 할 그런 아이들의 손길을 세월이 흘러도 외면하지 말자 다짐해 본다.

땀에 젖은 군복에, 군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을 호석이에게 애인 같은 상큼한 편지를 조만간에 써야겠다.

빈자리 채우기

제1호! 광주시 바둑협회 최장배 바둑대회

일반부 결승전 白 신희원 5단 黑 오재관 5단

요즘은 바둑TV와 인터넷 바둑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프로들의 대국과 바둑강좌를 실시간으로 받아들 수 있다. 바둑팬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환경으로 그런만큼 바둑 이론과 수준이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 바둑도 모범포석이라고 할 정도로 매끄러운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백 22로 지키고 흑 23으로 잘

<참고도> 이 바둑도 모범포석이라고 할 정도로 매끄러운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백 22로 지키고 흑 23으로 잘

행복한 환경 2보(22~40)

한국기사 3명이 LG배 세계기왕전 4강에 올랐다.

한국은 12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LG배 세계기왕전 8강전에서 이세돌, 한상훈, 은소진이 각각 중국의 장쉬, 류칭, 일본의 고노리온을 따돌리고 4강에 진출했다. 중국의 4강 진출자는 후야오위.

한상훈은 이날 승리로 초단으로서 세계 최초로 국제대회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3년 동안 LG배 결승 진출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한국은 4강에 무려 3명의 선수가 올라 이번 대회 우승가능성을 높였다. 4강전은 14일 속개된다. 대회 우승상금은 2억 5천만원(준우승 8천만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

바둑소식

한국기사 3명이 LG배 세계기왕전 4강에 올랐다.

한국은 12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LG배 세계기왕전 8강전에서 이세돌, 한상훈, 은소진이 각각 중국의 장쉬, 류칭, 일본의 고노리온을 따돌리고 4강에 진출했다. 중국의 4강 진출자는 후야오위.

한상훈은 이날 승리로 초단으로서 세계 최초로 국제대회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3년 동안 LG배 결승 진출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한국은 4강에 무려 3명의 선수가 올라 이번 대회 우승가능성을 높였다. 4강전은 14일 속개된다. 대회 우승상금은 2억 5천만원(준우승 8천만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음 10월 4일辛亥)

子	36년생 암종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48년생 남편과의 불화와 불평이 나타나나 본인의 잘못. 60년생 서투르고 뒷사람으로 인해 불평. 72년생 많은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림. 84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 필요. 행운의 숫자: 22, 16
丑	37년생 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49년생 기력이 쇠하니 심장을 살펴보고 보약을 먹어라. 61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라. 73년생 순위에 항해하는 격. 85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 행운의 숫자: 15, 33
寅	38년생 불면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하니 부분간의 언쟁을 삼가라. 50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62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74년생 큰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11, 34
卯	39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51년생 백전백패가 될 수 있으니 가까운 주변인에게 신용을 얻으라. 63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조그맣다. 75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12, 30
辰	40년생 일고는 있으나 불은 멀지 않다. 52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64년생 남의 말은 경청하고 결정은 혼자 하라. 76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23, 43
巳	41년생 손중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라. 53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사가 생길 수 있다. 65년생 처음 가는 길이나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77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행운의 숫자: 02, 41
午	42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명예는 지키라. 54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66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78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조심은 마라. 행운의 숫자: 18, 32
未	43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55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승진하는 격이나 이상문제는 조심하라. 67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79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0, 42
申	44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56년생 자기 일을 조심하라 벌여놓은 신용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68년생 바빠서 일손을 놓고 가족을 돌아보라. 80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처자의 건강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06, 28
酉	45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떨어지 않으리라. 57년생 일 거 수일 무척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해야. 69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81년생 주변의 이성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3, 41
戌	46년생 하는 일마다 불평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58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 70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82년생 혼자 사는 형상이니 재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24, 27
亥	47년생 불면이면 파멸임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59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폭소폭 살아난다. 71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83년생 풍파를 만나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20, 39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32>

Anything for you?
어느 것으로 하겠습니까?

A : Excuse me, can I order a cup of latte, please.
B : Sure. What size?
A : Tall, please.
B : Anything for you, miss?
A : A tall ice mocha, please

A : 여보세요, 라떼 하나 주세요.
B : 알겠습니다.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A : 큰 것으로요.
B : 어떤 것으로 할까요? 아가씨.
A : 아이스 모카커피 큰 것으로요.

* Can I order~? = Can I order~?
= I would like to have~
* Excuse me, ~ : 여보세요, ~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032>

このキムチ,味(あじ)がちょっと薄味(うすあじ)ですね
이 김치, 맛이 좀 싱겁군요.

A : このキムチ,味(あじ)がちょっと薄味(うすあじ)ですね.
B : あれ?辛(から)いののに味が分かるんですか.
A : ええ、私ももう韓国に7年も暮(くら)しているんですよ.
これくらいは.
B : ええ、これはたまげましたね.

A : 이 김치, 맛이 좀 싱겁군요.
B : 아니? 매운데 맛을 알 수 있습니까?
A : 예, 저도 벌써 한국에 7년이나 살았어요. 이 정도는...
B : 와! 이거 놀랍군요.

薄味(うすあじ) : 맛이 싱겁다
辛(から)い : 맵다
たまげる : 놀라다, 깜짝놀라다
暮(くら)す : 살다, 생활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9>

你哥哥今年多大了?
네 형 올해 몇 살이야?

A: 你哥哥今年多大了?
Nǐ gēgē jīnnián duō dà le?
네 형이 몇살인지 물어봐요.
B: 我哥哥今年二十一岁了。
Wǒ gēgē jīnnián èrshíyī suì le.
네 형이 21살이야.
A: 你姐姐今年多大了?
Nǐ jiějie jīnnián duō dà le?
네 여제이 몇살인지 물어봐요.
B: 我姐姐今年二十五岁了。
Wǒ jiějie jīnnián èrshiwǔ suì le.
네 여제이 25살이야.

A: 네 형 올해 몇 살이야?
B: 네 형은 올해 21살이야.
A: 네 누나는 올해 몇 살이야?
B: 네 누나는 올해 25살이야.

多人 [duō rén] (가족) 일막인가
수우 [shuǒ yǒu] 음해, 공연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49>

殷鑑(은감)
은나라, 거울감

은감(殷鑑)은 은(殷)나라의 거울이라는 말이지만, 흔히 은나라가 교훈으로 삼을 선례(거울)는 멀리 있지 않다는 ‘은감불원(殷鑑不远)’으로 사용한다.

이 말은 ‘시경(詩經)’의 ‘대아편(大雅篇)’에 “은(殷)나라의 거울은 먼 데 있지 않다(殷鑑不远), 전대(前代)인 하(夏)나라에 있다(在夏后之世)”라고 실려 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이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져 밤이고 낮이고 음란한 음악과 술에 빠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또 흥건하는 중신들을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주왕의 보좌를 맡고 있던 삼공(三公) 중 구후(九侯)와 악후(鄂侯)가 처형되었다. 이에 서백(西伯)이 주왕에게 간하기를, “은 왕조의 시조인 탕왕에게 주발달한 하 왕조의 걸왕을 거울삼아 멸망의 전철을 밟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왕은 이 일을 빌미로 서백을 유배 시켰다. 서백의 이 간언이 시경에 노래로 실렸던 것이다.

‘은감’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거울로 삼으라는 의미로 ‘복철(覆轍)’이나 ‘반면교사(反面教師)’와도 비슷한 말이다.

<한여원(韓喜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